

“미국장로교 한인 이민 1 세교회의 현실과 목회적 전망 및 새 패러다임” 연구

(NCKPC/CCKAP 협력 프로젝트)

팬데믹 이후 미국 내 한인교회 급격히 감소하여, 어느 통계에 의하면 4,000 여 교회에서 2,780 여 교회로 감소했다고 합니다. 이런 현상은 미국장로교 내 한인교회에서도 뚜렷합니다. (2025 년 현재 미국장로교 내 한인교회는 280 여개로 집계됩니다.) 또한 통계적으로 볼 때 이민 1 세 교회의 지속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, 소도시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한인 1 세들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.

그럼에도 많은 1 세 목회자들, 교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교회의 ‘양적 성장’에 소망이 있습니다. 7,80 년대 한국 교회 성장 모델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, 지역적인 편차는 존재하지만, 더 이상 그런 양적 성장 모델이 통하지 않으며, 목회자들은 성장 부진과 사회적 한계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고 있습니다.

한편, 이민 1 세 교회의 쇠퇴에 대한 대략적 통계는 있었으나, 미국장로교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한 정확한 조사는 없습니다. 또한 교회 현실을 바탕으로 양적성장만이 아닌 새로운 목회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나 논의도 부족합니다.

따라서 이 연구와 논의는 우선 미국장로교 내 한인 1 세 교회의 실태에 정확한 조사를 기반으로 시작됩니다. (CCKAP 은 총회 스태프와 함께 이를 추진 중입니다.) 이를 기반으로 한인 이민 1 세 교회의 미래 방향을 전망하고, 목회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합니다.

NCKPC 와 CCKAP 는 1 세 목회자들 및 지도자들 간의 소통과 격려의 장을 마련하고, 한인 이민교회가 가진 한 달란트를 주님의 뜻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목회적 방향을 모색하게 할 것입니다.

*** CCKAP (한미노회 협의회)**

CCKAP (Coordinating Committee for Korean-American Presbyteries) 은 미국장로교 내 정식 공의회(governing body)인 **한미노회들의 협의회**이다. 현재 166 개 노회 중 3 개 노회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미노회로서, “중서부노회” (시카고 지역), “대서양노회” (워싱턴 아틀랜타 지역), “동부노회” (뉴욕 뉴저지 지역) 가 있다.

1997 년 교단총회의 공식 결정으로 CCKAP 이 시작되었고, 3 개 한미노회에 소속된 전체 교회수는 약 100 여 교회이며, 임원들이 매년 연례모임을 통해 목회와 교회 질서에 대해 공동으로 보다 성숙한 교회들이 되도록 협력하고 있다.

한미노회들의 모임인 CCKAP 은 NCKPC 와는 다른 협의체이지만, 한미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은 NCKPC 의 회원교회이기도 하다. 그런 의미에서, NCKPC 와 CCKAP 은 서로 협력하여 교단 안팎에서 복음 사역과 교회 섬김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.